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and strengths of family life of adolescents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교 수 이 정 우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강 사 김 경 아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Lee, Jeong-Woo
Lecture : Kim, Kyung-Ah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duce the importance of manners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and strengths of family life in adolescents and to examine positive variants that can enhance healthy family life.

A total of 312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final data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in adolescents was just above the median. In particular, the lowest sector was in public manners requiring intensive activation measures.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results were sex, self-esteem, level of intimacy with mothers, and relative comparisons. Especially, the level of intimacy with mothers was the most influential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s of mothers in manners education.
2. Adolescents seem to be leading a comparatively healthy family life. In the subcategories, bonding among family members appeared to be the most prominent. Nonetheless, little time is spent together among family members. Moreover, psychological variants were very influential in the strengths of family life in adolescents. Considering that

implementation of manner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strengths of family life,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manners culture of adolescents in required.

I. 서론

우리 나라는 일찍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의 칭송을 받으며 효와 질서에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살아왔다. 과거 몇 대가 함께 살았던 대가족제도 하에서 청소년들은 웃어른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절을 습득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격체의 바탕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예의 정신은 실종된 채 지식중심의 편협한 교육현실 속에서 지금의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를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적 존재이며 아직까지 신체적·정서적·지적인 면에서 미성숙한 상태로서,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곧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주요 기능들이 사회로 이양되는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기능이 학교체제로 대부분 전이되었으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인해 조화로운 인성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최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학·아동학·사회학 등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대부분 청소년들의 부정적 측면 즉,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 등의 문제와 관련지은 병리적인 접근에 집중됨으로써 가정이 갖는 긍정적인 자녀양육의 기능과 역할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주5일제 근무의 확산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가 가족간의 안정을 이끌지 혹은, 갈등을 초래할지는 가족원 개개인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즉 가족의 일원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만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해 주는 실천전략은 곧 서로를 배려하는 예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avighurst(1972)가 제시했듯이 바람직한 가치관과 윤리체계의 확립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주요한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 중의 하나이며 이때 형성된 예절습관은 평생을 좌우하는 인성적 자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규범인 예절수행 정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예절수행 정도에 따라 가정생활 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가정의 건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 변인인 예절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밝혀냄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예절수행

예(禮)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칙(儀則)’ 즉 도리를 의미한다(정인승, 1973). 유가사상(儒家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동양의 예는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공자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禮者自卑而尊人) 것이며 천만사물(千萬事物)에 대한 공경(恭敬)과 겸양(謙讓) 및 계교(計較)하지 않는 마음가짐(원불교 교화부, 1986)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반면 중세 기사도 정신에 바탕을 둔 서양의 예절은 etiquette·manners 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배려와 친절에 바탕을 둔 규범(Post, 1997)이라고 정의된다. 이와 같이 시

대와 문화에 따라 그 표현방법은 다를지라도 예(禮)가 추구하는 바는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으로 집약된다. 즉 스스로 사람다움을 지니기 위해 자기를 관리하는 수기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의미하는 치인이 예의 기능(전례연구위원회, 1996)인 동시에 예를 지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란 예절생활의 완성을 위하여 실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예절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실천정도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이정우, 김경아, 1997).

최근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가치규범과 도덕성 함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인간육성의 내용을 담아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현행 교과운영은 주지주의 교육에 강조를 둬으로써 예절 같은 정서교육의 훈련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인성교육의 대표적인 수업인 도덕이나 예절교육은 입시위주의 교과운영 속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 예절교육을 위한 시간 배정은 축소되고 할당된 시간마저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 내용도 실습보다는 이론에 그쳐 예절교육의 본래 목적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발달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인지적 성숙과 자아의 발달로 자신의 도덕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며, 사회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적 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려는 도덕적 사고를 하는 시기이다. 즉 사람들간의 관계에 있어 서로를 신뢰하며 상호관여하고 도덕적 가치와 질서를 중시하고 준수하려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가 도덕성 발달과 가치관 정립 및 바른 양심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할 때 실천을 통한 예절수행의 습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때 형성된 예절수행의 습관은 성인 예절수행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일생동안 연속성을 지니는 중요한 인성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인생주기 어느 시기보다도 청소년기의 예절수행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

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점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절관련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예절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관실습에 관하여 연구한 황인명(1980)은 지식편중으로 기울어진 학교교육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생활관 실습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들의 예절수행을 논의한 김진규(1996), 이길표(1997)의 연구결과 기성세대에 비해 청소년들의 예절수행 정도가 낮은 것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자 예절태도의 초석이 되는 배경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예절태도에 관련된 연구(강선영, 2000; 박정순, 1995; 김명옥, 1999; 김정애, 1992; 전상수, 1997)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절수행 정도의 향상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김명옥(2000)은 부모와의 연계가 높은 중학교 시기에 가정내 모범을 통해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언하였다. 반면 교육적 측면에서 예절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즉 김동호(1995), 김양섭(1999), 손하중(1998) 등은 청소년집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장기적인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괄적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즉 통제집단에 비해 예절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의 생활습관이 더 바르며 예절의 수행정도도 보다 향상됨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예절태도가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 측면의 연구(이정남, 1999)가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예절은 습관화된 훈련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정우·김경아, 1997)이므로 학교차원에서 예절영역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인성교육을 실천한다면 이는 곧 청소년들의 습관으로 굳어져 건전한 청소년 생활규범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청

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

가정생활건강성이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특성들을 가족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만의 가정생활건강성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연구 대상을 달리한 가정생활건강성의 관련 연구들을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가정학 연구의 새로운 관심분야로 제시되고 있는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족을 긍정적인 일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개방체계(Open system)의 시각에서 가족을 탐구하고 있다. 즉 건강한 가족체계는 개별 가족성원의 가치관 및 노력여하, 그 가족이 속한 확대 친족체계나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Olson & DeFrain, 1994). 서구에서 비롯된 건강한 가족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정신의학 분야에서 최초로 가족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이래 주로 의학의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가족 치료적 접근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Otto(1962)의 연구를 발판으로 좀 더 조직적인 건강성 관련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비로소 치료 차원이 아니라 예방 및 교육차원에서 정상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Stinnett와 Sauer(1977), Ammons와 Stinnett(1980)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관련변인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연구영역을 확대시켰는데 다만 경험적 연구의 축적과 함께 1980년대에는 사회학·심리학 등 인접학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개념설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Green & Vosler, 1985; Lee, 1988). 구체적으로 건강한 가족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린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Pratt(1976)는 가족원이 서로 다양하고 규칙

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고 광역사회와 활발한 유대를 지니며 가족원의 개별성을 고무하고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문제해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족으로 설명하였으며, Smilkstein(1980)은 삶의 도전에 부딪혔을 때 신체적, 정서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응집상태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접근(Schultz, Schultz, & Olson, 1991; Zimmerman & Fetch, 1994)과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동양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Meredith, et al., 1992; Xia, 1994). 반면 우리 나라는 건강한 가정형성에 대한 학술대회에서의 관심을 필두로 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특징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영주(1999)는 기존의 '건강가정'과 '건강가정'의 개념을 비교하여 정립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심화시켰다. 즉 건강가정이란 가족원이 건강하고 건실하며 가족의 제 기능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으로, 건강가족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도덕적-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대화기술,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내림으로써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심리 및 관계적인 측면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어 어은주·유영주(1995)는 가정학적 측면에서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척도 개발을 시도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부(박정희·유영주, 2000; 어은주, 1996)와 청소년(윤세은, 2000) 및 노인(경지영, 2000) 등 대상을 달리하여 각각 그들이 인지하는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특히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윤세은(2000)의 연구에서는 친애적인 가정분위기가 자아정체감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아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농촌의 청소년

기 가족을 대상(양순미, 1999; 양순미·유영주·정현숙, 2001)으로 건강성이 비교 분석되는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혼란을 야기시키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실제 이 용어들의 개념은 서로 유사한 개념이 다른 용어로 제시되고 있는 측면이 많을 뿐 아니라(어은주·유영주, 1995) 전반적으로 가족간의 물질적이거나 신체적인 특성보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가족간의 정서적인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므로 건강성에 대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동일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Otto(1962)는 공유하는 신념·종교와 도덕적 가치·사랑과 배려 및 이해·공통의 관심사와 목표·자녀에 대한 사랑과 행복·함께 일하고 놀기·특유의 여가활동공유를, Barnhill(1975)은 개별화·명확한 인식·의사소통·유연성·신뢰성·역할공유·안정성·세대간 경계를, Olson과 McCubbin(1983)은 응집력·커뮤니케이션·적응력을, Sinnett와 DeFrain(1985)은 존중과 애정·유대·긍정적 커뮤니케이션·함께 시간을 갖기·정신적 안녕감·스트레스와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할 가족의 능력을, Randall(1995)은 가족간의 여가·의사결정·가치관·유대·커뮤니케이션·가족원으로서 자부심·확신을, 어은주·유영주(1995)는 가족간의 유대·의사소통·가치체계공유·문제해결능력을, 양순미(2000)는 의사소통과 문제대응 및 가족정체감·의사결정과 가족유대감·가족융통성과 사회적인 지지·가족의례 창출 등을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가정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역기능적인 가족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상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원간의 유대감·커뮤니케이션·시간공유·위기대

처능력 등의 하위영역을 통해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Stinnett와 DeFrain(1985)은 '건강한 가족이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듯이 가정의 건강한 생활증진을 유도하고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관련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기 가정의 건강성을 그들의 입장에 근거하여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관련변인고찰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만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달리한 관련연구들을 일부 포함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성별

성별에 따른 예절수행 정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정애, 1992; 전상수, 1997)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예절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또 다른 연구(김명옥, 1999; 이정남, 1999)에서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나타나 일관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가정생활건강성과 관련지어 볼 때 윤세은(2000)의 연구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적절한 수준을 가진 가족을 건강가족으로 개념지은 박소영(1995)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은 응집성이, 남학생은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에 따른 예절수행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강선영, 2000;곽정순, 1996; 김정애, 1992; 손하중, 1998) 결과 예절교육수강 경험이 있거나 생활관 예절교육을 받은 경우 예절

에 대한 태도 및 수행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과의 관련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청소년 예절수행 정도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지만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9)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예절수행 정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연화(2001)도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 정도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자아존중감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어은주(1996)와 양순미(2000)의 연구결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tir(1967)도 개별 가족원의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인 가족건강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나 박정희·유영주(2000)는 주부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건강성이 같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이 두 변인이 상호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와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 및 가정생활건강성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5) 상대적 경제비교감

청소년의 상대적 경제비교감과 예절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곽정순(1995)의 연구결과 생활수준이 높고 부모의 직업이 안정적인 가정의 자녀가 예절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9)의 연구에서도 예절수행 정도가 재정영역을 포함한 가정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정생활건강성과 관련지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세은(2000)의 연구결과 월평균 수입이 250만원 이상이고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상류층 이상일 때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지영(2000)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에 따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용돈만족도가 높을 때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면이 중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가족생활의 건강성이 가족의 경제적 상태와 상관이 없다(안양희, 1988; Brigman, Schons, & Stinnett, 1986)는 연구, 자신을 중류층으로 인지하는 계층이 가족의 건강성이 가장 높다는 어은주(1996)의 연구 및 가족의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가족의 건강성이 낮다(Byles, et al., 1988)고 하는 연구 등 각각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변인, 심리적변인)은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에 따라 가정생활건강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배경변인, 예절수행 정도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응답자가 자기기입식(self-report)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교수5인의 안면타당도와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를 구한 결과 문항구성 및 내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문항간 내적일치도에 의

한 Cronbach's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척도를 완성하였다.

- 1) 예절수행 정도에 관한 척도는 이정우·김경아(1997, 1999)와 이정우·김연화(2001)의 척도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된 문항들만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등의 6개 하위영역 총 30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alpha=.96$ 으로 나타났으며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예절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가정생활건강성의 척도는 Stinnett와 De Frain(1985)의 척도를 동양문화권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실시한 Xia(1994)의 연구와 Randall(1995)의 FAMPRO(Family Profile) 및 어은주(1996)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가족원간의 유대감, 커뮤니케이션, 시간공유, 위기대처능력 등의 4개 영역 총 31문항이 청소년에게 적합한 가정생활건강성의 척도로 완성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alpha=.88$ 로 나타났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의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3)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2)의 Self-Esteem Inventory를 변안한 박애선(1994)의 설문을 기초로 총 8문항이 작성되었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alpha=.77$ 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부호화하여 계산하였으며 5점 Likert 형으로 총점수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 간의 감정적 유대 정도를 의미하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는 강완숙(2000)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87$ 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5)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이웃이나 친구

또는 우리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였을 때 느껴지는 지각 정도를 의미하는 상대적 경제비교감은 Davis(1981), Dillard(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박미금(1993)의 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83$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함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청소년기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사춘기부터 성인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신체발달과 함께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가 시작되는 청소년 초기단계인 중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02년 6월1일~5일 사이에 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인지수준에 적합하도록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7월9일~13일에 걸쳐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표집의 편파성을 줄이고자 강남과 강북에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총 5개구(강남구·광진구·노원구·성동구·용산구)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은 중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의 취지를 설명한 뒤 수업시간에 배부하여 곧 회수하였다. 총 350부를 배부하여 34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32부를 제외한 312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Cronbach's α ·빈도·백분율·평균·표준편차·t-test·F-test·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은 남학생 44.2%, 여학생 55.8%로 비교적 고르게 의도적인 표집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는 유 63.1%, 무 36.2%로 학생들의 예절교육수강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진규(1996)의 32.3%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들이 예절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비해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2.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 및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경향

<표 2>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

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3.60(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2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예절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선영(2000), 이길표(1997)의 생활예절 행동(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각각 62점, 60점)과 비교해 볼 때 10점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청소년 후기에 비해 청소년 초기의 실천예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부모와의 유대가 깊고 집단활동이 보다 용이하며 입시나 취업 등의 부담이 적은 관계로 인성교육이 더 활발하다고 한 김명옥(2000)의 연구를 뒷받침 해 준다. 반면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9), 이정우·김연화(2001)의 결과(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각각 78점, 77점)에 비해서는 예절수행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식사예절, 사교예절, 대화예절, 가정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의 순으로 나타나 공중예절 수행정도를 높일 수 있는 집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312)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138(44.2)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	유	197(63.1)
	여	174(55.8)		무	113(36.2)

※ 합계의 차이는 무응답에 기인한 것임

<표 2>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 및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경향

변인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예절수행 정도	대화예절	3.71	.63
	인사예절	3.58	.62
	공중예절	2.78	.71
	가정예절	3.63	.77
	사교예절	3.79	.66
	식사예절	3.99	.72
	전체	3.60	.45
가정생활건강성	유대감	3.97	.76
	커뮤니케이션	3.51	.81
	시간공유	3.26	.81
	위기대처능력	3.73	.76
	전체	3.68	.70

중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집단의식의 결여로 청소년들의 공중생활 예절이 부족하다고 한 이정남(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들의 예의범절 특히 공중예절 결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현실적으로 가시화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다른 영역에 비해 공중예절 부분이 특히 취약하게 나타난 것은 실천적인 면에서 공공장소 중심의 에티켓(outdoor etiquette)을 중시하는 서양예절에 비해 자기관리에 중점을 두는 동양예절의 정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양인들은 어려서부터 문화국민으로서의 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공중도덕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강조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예절은 주로 개인관계나 가족중심의 가례(家禮)에 치우쳐 공중도덕에 대한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광의(廣義)의 개념에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중생활시절서와 타인을 배려하는 예절(이정우외, 2000)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禮記에 의하면 ‘예의 시작은 음식에서 시작된다’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자녀들에 대한 기본예절을 가르쳤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식사예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전통예절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은 전체적으로 평균 3.68(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4점)로 나타나 비교적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이 인지하는 건강성(어은주, 1996)(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8점)보다는 낮으나 고등학생(윤세은, 2000) 및 노인세대(경지영, 2000)가 인지하는 건강성(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각각 67점, 71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청소년기에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유대감, 위기대처능력, 커뮤니케이션, 시간공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성의 하위영역 중 가족간의 유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경지영, 2000; 어은주, 1996; 윤세은, 2000)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 가족은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 세대를 초월하여 가족간에 강한 유대감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영역 중 시간공유 영역이 낮게 나타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을 짐작케 한다. 더불어 이는 청소년기 학업부담과 과외수업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 및 부친의 직장생활시간 불규칙성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주5일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건강한 청소년기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공유의 기회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성이 높은 가정의 특성들간의 관계를 규명한 Schumm(1985)은 시간공유가 직접적이고 개방된 양방향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갈등과 위기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생활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간공유를 포함하여 가정생활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가정생활건강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청소년기는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가족 내 응집성과 친밀성 등 가족의 심리, 정서적 유대가 약해지는 시기(Olson, Lavee & McCubbin, 1988)인 만큼 가족간에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도모하여 가족간의 시간공유를 높일 때 청소년기 가정생활건강성은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3. 배경변인이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 및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1) 배경변인이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인 예절수행 정도에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beta=.11$), 자아존중감($\beta=.19$),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beta=.28$), 상대적 경제비교감($\beta=.16$)으로 사회경제적 변인보다는 심리적 변

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3%였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상대적 경제비교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예절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예절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김정애(1992)와 전상수(1997)의 선행연구가 본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서 남학생보다는 성별이 같은 여학생이 부모 중 인성교육의 주담당자인 어머니와 공유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보다 바람직한 가정규범교육이 강조된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이 예절수행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대상을 달리한 선행연구(이정우·김경아, 1999; 이정우·김연화, 2001)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예절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개인의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제시한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

동하도록 동기화(Sigall & Gould, 1977)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치규범인 생활예절을 보다 잘 지키도록 동기화 되어 예절수행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 때 청소년 자녀의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난 점은 예절같은 정의적 영역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가족관계의 질적 변화를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배운 행동규범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아직도 부모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장휘숙, 2001) 가정의 정서적 중심점인 어머니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전한 예절수행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의 예절행동을 강화시킨다면 이는 곧 청소년 자녀의 예절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

<표 3> 배경변인이 예절수행정도에 미치는 영향

예절수행 정도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17	.13*	-.05	-.04	.01	-.01	.18	.12*	.18	.13*	.14	.10	.10	.11*
예절교육 수강 경험여부	.04	.03	-.06	-.05	.05	.04	.07	.05	.04	.03	.03	.02	.03	.03
자아존중감	.06	.06	.20	.21***	.14	.13	.22	.18***	.10	.10*	.04	.04	.13	.19**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	.10	.14*	.07	.11	.06	.08	.42	.48***	.14	.19**	.11	.14*	.14	.28***
상대적 경제 비교감	.15	.18**	.12	.14*	-.02	-.02	.12	.11*	.08	.09	.12	.12*	.10	.16**
상수	2.51		2.26		2.11		.78		2.54		2.95		2.20	
R ²	.10		.12		.03		.39		.14		.06		.23	
F ratio	6.52***		8.16***		1.74		37.59***		6.43***		3.76**		17.36***	

*p<.05, **p<.01, ***p<.001

※ 가변인: 성별 - 기준: 남학생 / 비교: 여학생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 - 기준: 무 / 비교: 유

비행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은 인간생활에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교육의 장(場)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대적 경제비교감에 따라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수준이 높고 부모의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의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 가정의 청소년보다 생활예절 실천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곽정순, 1995)와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와 예절수행 정도가 관련이 없게 나타난 것은 과거에 비해 예절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관심은 늘어났으나 대부분의 학교 예절교육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특강형식으로 그치고 있어 단순히 예절교육 수강여부가 별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시적이고 형식적이거나 이론적인 예절교육이 아니라 전담교사에 의한 장기적이고 심도 깊은 예절교육이 이루어질 때 보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예절교육을 실시할 때 동기부여의 방법이나 교육내용, 교육기간 등의 적절성이 의미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배경변인이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정생활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인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beta=.27$),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beta=.46$), 상대적 경제비교감($\beta=.22$)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1%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상대적 경제비교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가정생활을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가정생활건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에 여유가 있어서 결국은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평가한다는 양순미(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청소년의 예절수

<표 4> 배경변인이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생활 건강성 배경변인	유대감		커뮤니케이션		시간공유		위기대처능력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05	.04	.09	.06	.00	.00	.07	.05	.07	.05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	-.02	-.01	.01	.01	.06	.04	.01	.01	.02	.01
자아존중감	.30	.25***	.34	.27	.24	.19	.28	.24***	.29	.27***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	.38	.45***	.36	.40	.31	.35	.36	.43***	.36	.46***
상대적 경제비교감	.22	.21***	.16	.15	.30	.27	.20	.09***	.21	.22***
상수	.79		.42		.26		.76		.62	
R ²	.47		.39		.35		.41		.51	
F ratio	53.21***		37.76		32.10***		41.94***		60.82***	

*p<.05, **p<.01, ***p<.001

※ 가변인: 성별 - 기준 : 남학생 / 비교 : 여학생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 - 기준 : 무 / 비교 : 유

행 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와의 관계특성이 가정생활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저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부모로부터 벗어나 또래관계망이 확대되는 시기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기에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한다. 끝으로, 상대적 경제비교감도 가정생활건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문

제는 개인의 안정과 가족관계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Voydanoff & Donnelly, 1989) 적절한 소득수준이 충족될 때 가족의 안녕(well-being)이 보장되므로 청소년의 주관적인 경제적 지표인 상대적 경제비교감이 가정생활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 스스로 주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가정 내 경제적 안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청소년이 지

<표 5>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독립 변인		종속 변인		하 위 영역													
		유대감	F값	D.	커뮤니케이션	F값	D.	시간 공유	F값	D.	위기대처능력	F값	D.	전체	F값	D.	
하 위 영역	대화 예절	상	4.29	16.66 ***	C	3.85	14.60 ***	C	3.54	8.42 ***	B	4.04	16.02 ***	C	4.01	18.83 ***	C
		중	3.99		B	3.50		B	3.25		A	3.76		B	3.69		B
		하	3.65		A	3.20		A	3.04		A	3.41		A	3.38		A
	인사 예절	상	4.33	24.04 ***	C	3.91	25.65 ***	C	3.64	17.00 ***	B	3.73	28.21 ***	C	4.01	30.01 ***	C
		중	3.95		B	3.45		B	3.17		A	3.65		B	3.63		B
		하	3.61		A	3.13		A	3.00		A	3.40		A	3.33		A
	공중 예절	상	4.18	6.40 **	B	3.74	9.23 ***	C	3.47	7.14 ***	B	3.95	8.79 ***	B	3.91	10.62 ***	B
		중	3.89		A	3.49		B	3.26		A	3.71		A	3.65		A
		하	3.83		A	3.26		A	3.03		A	3.51		A	3.46		A
	가정 예절	상	4.59	111.41 ***	C	4.13	64.82 ***	C	3.77	44.47 ***	C	4.32	81.50 ***	C	4.27	104.38 ***	C
		중	4.03		B	3.47		B	3.28		B	3.76		B	3.70		B
		하	3.24		A	2.92		A	2.70		A	3.09		A	3.04		A
	사교 예절	상	4.27	19.15 ***	C	3.79	14.51 ***	C	3.51	9.18 ***	B	4.03	21.12 ***	C	3.98	21.13 ***	C
		중	3.91		B	3.45		B	3.19		A	3.70		B	3.62		B
		하	3.62		A	3.18		A	3.03		A	3.35		A	3.35		A
	식사 예절	상	4.25	15.32 ***	B	3.81	15.62 ***	B	3.43	5.86 **	B	4.01	16.31 ***	C	3.94	16.05 ***	C
		중	3.88		A	3.41		A	3.24		AB	3.66		B	3.61		B
		하	3.71		A	3.22		A	3.05		A	3.44		A	3.42		A
	전체	상	4.50	68.78 ***	C	4.01	46.86 ***	C	3.70	33.51 ***	C	4.22	56.14 ***	C	4.17	68.49 ***	C
		중	3.98		B	3.49		B	3.26		B	3.75		B	3.69		B
		하	3.39		A	2.97		A	2.78		A	3.17		A	3.14		A

*p<.05, **p<.01, ***p<.001

※ 예절수행 정도 전체와 각 하위영역은 상 : M+SD/2 이상, 중 : M-SD/2 ~M+SD/2, 하 : M-SD/2이하를 기준으로 상중하 집단을 구분함

각한 가정생활건강성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표 5>와 같이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에 따라 가정생활건강성을 분석한 결과 하위영역을 포함한 전(全)영역에서 일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청소년일수록 가정 및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며 청소년의 순조로운 적응이 이루어지고 바람직한 적응은 곧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으로써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 이정남(199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즉 청소년 스스로 예절을 잘 수행할 때 올바른 자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가정생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예절의 실천은 가정생활의 만족과 건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흔히 ‘문제아 뒤에 문제가정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환언하면 곧 ‘예절바른 청소년 뒤에는 밝고 건강한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은 편중된 지식위주의 교육을 강조한 나머지 가정내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예절에 대한 교육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자녀에 대한 예절교육과 생활 속에서의 실천은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현대 부모들의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예절바른 청소년들이 가족간에도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을 볼 때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실천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사료된다.

5.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배경변인과 예절수행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1단계에서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beta=.17$),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beta=.24$), 상대적 경제 비교감($\beta=.15$)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단계에서 예절수행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예절($\beta=.39$)과 식사예절($\beta=.08$)로서 설명력은 67%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예절수행 정도가 추가될 때 가정생활건강성의 설명력이 상승되므로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가정생활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으며 가정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만족한 경우 예절수행의 목표인 원만한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맞춘 새로운 모-자녀 관계를 구축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예절수행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가정생활 속에서 청소년기를 무리없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Olson과 DeFrain(1994)은 건강한 가족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는 가족생활상을 목표로 노력하고자 동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동기화 자원 중의 하나가 예절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정과 학교 및 사회체제 속에서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가정 내에서 예절수행에 대한 부모님들의 솔선수범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교육기관에서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실천 및 장애요소 등에 관한 양적인 실태조사와 개개인의 특성에 근거한 심층적인 문화기술법을 이용한 질적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요

<표 6>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성별	.08	.06	-.01	-.01
예절교육수강 경험여부	.01	.01	-.02	-.02
자아존중감	.29	.27***	.19	.17***
어머니와의 정서친밀도	.35	.46***	.18	.24***
상대적 경제비교감	.21	.22***	.14	.15***
대화 예절			.01	.01
인사 예절			.06	.05
공중 예절			.06	.06
가정 예절			.35	.39***
사교 예절			.09	.08
식사 예절			.08	.08*
상수	.63		-.38	
R ²	.49		.67	
F ratio	58.13***		52.19***	

*p<.05, **p<.01, ***p<.001

구도에 맞는 체계적인 예절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이는 곧 청소년들의 예절수행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청소년기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시키는 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는 양호한 수준(72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식사예절, 사교예절, 대화예절, 가정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의 순으로 예절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실천적인 면에서 청소년의 공중예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동체의 질서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같은 공중 예절 함양의 교육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 상대적 경제비교감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 스스로 자

신에 대해 존중감을 높이고 어머니의 예절수행 모범과 교육, 가정 내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지닐 때 생활 속의 예절수행 정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적 청소년 초기에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청소년기 가정생활건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의 정적인 관련성이 매우 높게 확인됨으로써 예절바른 생활이 건강한 가정생활의 초석임을 입증하였다. 끝으로 모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된 결과 가정 예절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정서적 구심점인 어머니를 통해 가족원간에 서로 배려하고 수용하는 예절정신을 습득하고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기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긍정적이고 보람된 청소년기를 보내고 안정된 성인기를 맞을 수 있도록 규범화되고 체계적인 예절교육이 가정과 학교, 사회의 연계망 속에서 공중예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현 시대에 맞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근거한 예절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핸드폰·인터넷 예절 등이 포함된 신(新)개념의 예절교육이 교내 특활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긍정적인 청소년 하위문화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 가정생활건강성을 측정함에 있어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관계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여가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학업에 따른 시간제약이라는 한국 내 특수한 청소년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와 같이 '시간공유' 등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하위영역을 점진적으로 추가시킴으로써 보다 한국 실정과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척도가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가정생활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변인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니며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유의한 배경변인으로 밝혀진 만큼 어머니의 예절수행을 통해 청소년 자녀의 예절수행을 파악해 보는 세대간 연구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 1) 강선영(2001). 실업계 여고생의 예절의식·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 강완숙(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 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의 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3) 경지영(2000). 여성노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경향과 우울정도와의 관계-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4)곽정순(1995). 청소년의 예절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5) 김동호(1995). 예절교육을 통한 도덕성의 발달에 관한 연구-시각장애 중학생의 수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6) 김명옥(2000). 중등학교 예절교육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 7) 김양섭(1999). 인성교육을 통한 바른 생활 습관형성에 관한 연구-학교생활예절 교육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8) 김정애(1991). 중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9) 김진규(1996). 청소년 예절교육. 한국여성교양학회 213, 261-306
- 10)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가계관리 행동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1) 박소영(1995).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및 응집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12) 박애선(1994).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3) 박정희·유영주(2000).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55-174.
- 14) 손하중(1998). 예절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생활과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 15)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16)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17) _____·유영주·정현숙(2001). 한국 농촌의 건강가족 집단분류 및 특성에 관한 연

- 구-자녀교육기의 농촌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31-48.
- 18)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고찰-자녀 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19) _____·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20) 원불교 교화부(1986). 예의범절은 이렇게. 원불교 교화부.
 - 21) 유영주(1994).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93-102.
 - 22)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23) 이길표(1997). 규범서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25-137.
 - 24) 이정남(1999). 중·고등학생의 예절태도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관동대 석사학위논문.
 - 25) 이정우의 공저(2000).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26) 이정우·김경아(1997).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수행.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12, 39-56.
 - 27) _____(1999).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정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1), 119-132.
 - 28) _____·김연화(2001). 도시인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2), 69-85.
 - 29) 장휘숙(2001). (전생애 발달심리학) 인간발달. 박영사.
 - 30) 전례연구위원회(1994). 우리의 생활예절. 성균관.
 - 31) 전상수(1997). 전통예절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석사학위논문.
 - 32) 정인승(1973). 새 국어사전. 휘문출판사.
 - 33) 황인명(1980). 고등학교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34) Brigman, K. M. L., Schons, J. & Stinnett, N.(1986). Strength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A study of strong families in Iraq. Family Perspective, 20. 61-73.
 - 35) Byles, J., Byrne, C., Boyle, M. H. & Offord, D. R.(1988). Ontario child health stud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eneral functioning subscale of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mily Process, 27(1), 97-104.
 - 36) Green, R. G., & Vosler, N. R.(1985). The Beavers-Tim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385-398.
 - 37) Havighurst, R. J.(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Harper & Row.
 - 38) Lee, C.(1988).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the Beavers System Models. Family Process, 27. 73-85.
 - 39) Meredith, B., About, D. A., Tsai, R. & Zheng, F. M.(1992).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Chinese cultures: An exploratory study using the circumplex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 40) Olson, D. H. & McCubbin, H. I.(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 41) Olson, D. & DeFrain, J.(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42) Otto, H. A.(1962). What is a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1.
 - 43) Post, P.(1997). Emily post's etiquette(16th ed). Harper Collins Publishers.
 - 44) Pratt, L.(1976). Family structure and effective health behavior: The energized famil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

- 45) Randall, T. D.(1995). Assessing family strengths using the family profile: Study validate and evaluate constructs across four models of family functioning. Utah State University. MS.
- 46) Satir, V. M.(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 47) Schultz, N. C., Schultz, C. L. & Olson, D. H.(1991). Couple strengths and stressors in complex and simple stepfamilies in Australi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 48) Schumm, W. R.(1986). The diversity and strength of American famili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Office Printing.
- 49) Sigall, H. & Gould, R.(1979).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Evaluator gness on Effect Expenditure. Journal and Social Psychology 35.
- 50) Smilkstein, G.(1980). Assessment of Family Function. In: Rosen, G. Geymen. J. Layton, R(editors). Behavioral science in family practice.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 51)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New York: Berkley Publishing.
- 52) Stinnett, N., & Sauer, K. H.(1977).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 11(4), 3-11.
- 53) Xie, X.(1994),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government employe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 54) Zimmerman, T. S. & Fetch, R. J.(1994). Family ranching farming: A consensus management model to improve family functioning and decrease work stress. Family Relations, 43.